



Attigram

Attigram



꾸꾸까까님(으)로 로그인

꾸꾸까까님이 아니가요.? [계정전환](#)

Instagram 회원이 아니신가요?
지금 다운로드하여 가입하세요.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다운로드 하기
Google play



이름: Jojo

나이: 반오십 (현지 나이)

특징: 우리의 말귀야

우리의 통역사

※주의※ 기분변화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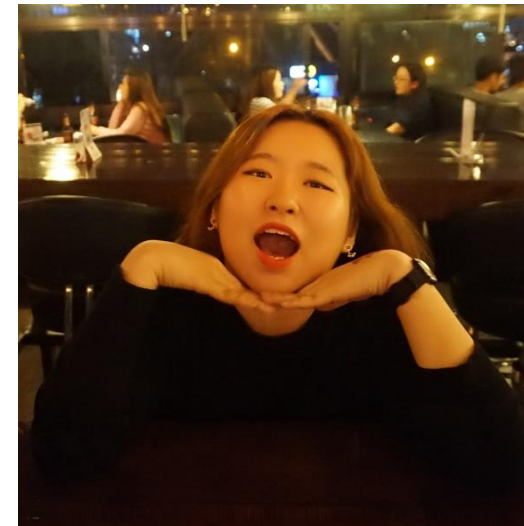


이름: Jimmy

나이: 23 (현지 나이)

특징: 종합병원

아이들의 놀이기구



이름: Bebe

나이: 22 (현지 나이)

특징: 매끼 하드캐리.

현지인같은 디깅로 2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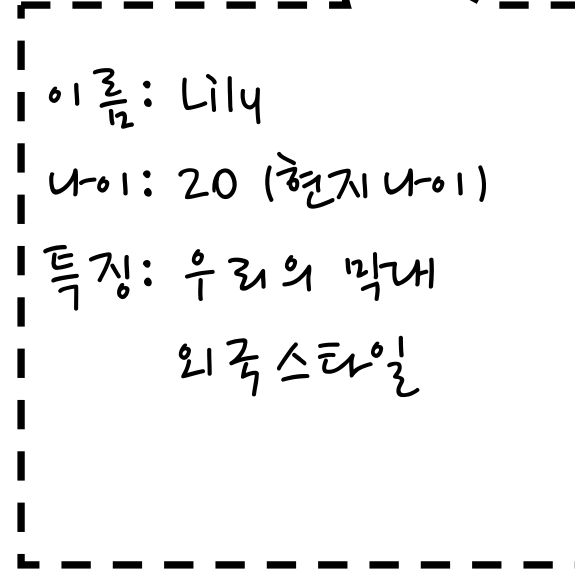


이름: Lilu

나이: 20 (현지 나이)

특징: 우리의 막내

외국 스타일





바기오의 중심인 세션 로드 위에 위치하고 있는 바기오YMCA는 우리가 5개월 동안 생활할 공간이다. 바기오YMCA는 호스텔을 비롯한 유치원, 다양한 체육시설, 이벤트홀을 가지고 있는 큰 규모의 공간이다.

9월 동안 우리는 바기오YMCA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만났고, 운동하러 오는 청년들과 인사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현재 우리는 도미토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끼리 지내보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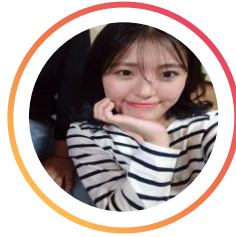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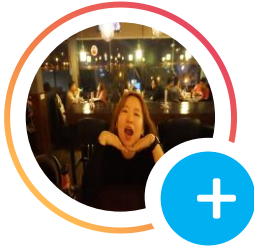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바기오
YMCA에는 우리의 엄마인 aida 총
장님과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아
폐들, YMCA를 관리해주는 꾸야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언어공
부를 함께해주는 6명의 선생님이
함께 하고 있다.



September 2017

Mon	Tues	Wed	Thurs	Fri	Sat	Sun
				1	2	3
4	5	6	7 필리핀 도착	8 ←	9 마닐라 관광 →	10
11 ←	12 바기오 관광 →	13 ←	14	15	16	17
18	19	20	21	22 Pre-school	23	24
25	26	27	28	29	30 →	



**#첫만남 #마닐라투어 #바기오도착
#바기오투어 #필리핀둘러보기**



Attigram

@ssimui



꾸꾸까까





Attigram

@ssimui



꾸꾸까까





❤️ 좋아요 777개

꾸꾸까까 #마닐라투어 #필리핀국립박물관 #마닐라대학교 #마닐라교회 #리잘공원 #포터산티아고



Attigram

@ssimui



꾸꾸까까





❤️ 좋아요 777개

꾸꾸까까 #바기오YMCA #첫만남



Attigram

@ssimui



꾸꾸까까





❤️ 좋아요 17개

꾸꾸까까 #바기오투어 #두테르테대통령별장 #밀리터리아카데미 #마인스뷰



좋아요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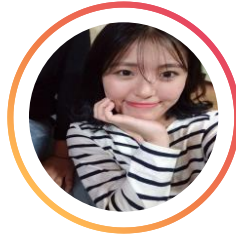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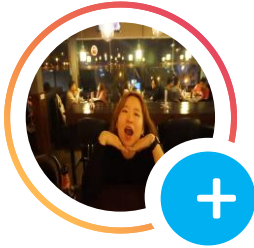
꾸꾸까까 / 처음 마닐라에 도착 하였을 때는 삼엄한 경비로 두테르테의 계엄령이 살갚으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상가 입구나 음식점 등에서도 보안관들이 한 명이상 총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삼엄한 환경에 긴장을 몸에 두르고 있었던 것 같다.

마닐라YMCA 팝스씨와 함께 우리는 마닐라 시티투어를 하며 필리핀 대학, 국립박물관, Rizal 박물관을 방문 하였다. 필리핀 대학은 필리핀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며, 대학교 안의 모습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국립 박물관에서는 필리핀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었고, RIZAL 박물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한 때 식민지 였던 필리핀의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을 볼 수 있었고 RIZAL이란 독립운동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필리핀 현지인들이 지나가는 우리를 보며 반갑게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해주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시티투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5개월 동안 지낼 필리핀에 대한 낯설음과 긴장감을 어느 정도 허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닐라에서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바기오에 도착 했다. 우리가 앞으로 5개월 동안 지내게 될 바기오의 첫 느낌은 상당히 추운 곳이라는 것이었다. 바기오YMCA는 듣던데로 상당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이었다. YMCA 멤버들과 어색한 저녁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먼저 바기오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익숙해지는데 노력했다.

댓글 달기...





#우리의활동 #in바기오 #Pre-school
#언어공부 #추석맞이 #마을살펴보기



Attigram

@ssimui



꾸꾸까까





❤️ 좋아요 9개

꾸꾸까까 #pre-school #바기오YMCA #강남스타일 #언어공부



Attigram

@ssimui



꾸꾸까까





❤️ 좋아요 9개

꾸꾸까까 #추석맞이 #한국음식소개



Attigram

@ssimui



꾸꾸까까





❤️ 좋아요 9개

꾸꾸까까 #마을둘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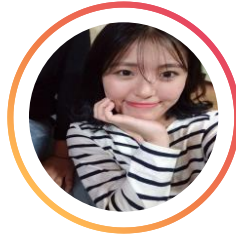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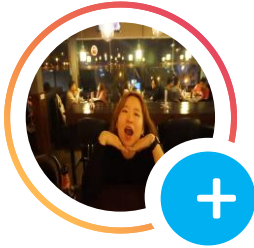
좋아요 13개

꾸꾸까까 / 처음에 pre school 보조교사로 각 반에 한 명씩 투입된다고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크게 느껴질 것 같았고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아이들과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우리의 입장에 대해 잘 이해 해주는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우리들을 부담스러울 정도로 환영 해줘서 우리의 걱정거리가 머쓱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아이들과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언어보다는 행동의 언어(눈빛, 손짓) 등이 더욱 다가가기 쉬웠던 것 같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놀이 시간보다는, 전반적인 수업이 공부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뒤쳐지는 아이들을 조금 더 신경쓰지 못하고,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해보이는 일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청했으나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국에서 10월 4일은 추석이다. 처음의 welcome-dinner 를 너무 잘 챙겨주신 기억에, 우리도 무엇을 대접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호박전, 돼지불고기, 소불고기, 산적, 계란국, 만두, 김밥, 버섯전, 잡채 등 9가지의 한국 음식을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나눠먹으며, 타지에서의 추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행복했었던 기억이 남는다.

댓글 달기...





**#우리의생활 #밥밥밥 #손빨래
#취미만들기 #운동**



Attigram

@ssimui



꾸꾸까까





❤️ 좋아요 9개

꾸꾸까까 #밥해먹기 #빨래 #가족행사초대받기 #시간보내기



좋아요 13개

꾸꾸까까 / 주말은 휴일인 종교적필리핀 문화로 인해 우리는 꽤 많은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할까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했었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에서 보낸 시간이 많은 듯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자유시간들에 현지공부, ymca 주변 지역 살펴보는 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다.

시간이 비는 날에는 몇 시간씩 소요되는 빨래를 하기도 했었고, 배드민턴, 농구, 축구 등의 운동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우기인 바기오에서 빨래는 특히나 더 힘들게 느껴졌다.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리다보니 빨래를 미룬 적도 많았다.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한번 더 옷을 입게 되고, 한번 더 수건을 쓰게 된 것 같다.

매번 요리를 하다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곤 했다. 잔반을 없애려는 노력도 해보았지만, 사실 잘 되지 않았었다. 문제는 이곳 YMCA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버린다는 점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빈곤 캠페인을 진행할 즈음에 건의를 한 번 해볼 생각이다. 아페들과 꾸야의 모든 식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용이 빈번한 부엌임에도 쓰레기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격이였다. pre-school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현지 가정에서는 모두 구분을 해서 버리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말을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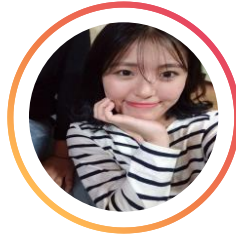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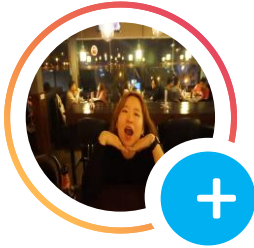
댓글 달기...





Attigram

@ssimui



#개인에세이 #9월의소감



//

한 달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달간의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마닐라에 도착하고 바기오에 넘어왔을 때 언제 끝내고 한국에 돌아갈까 생각했었는데 순식간에 30일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다.

모든 것이 불편해서 계속 익숙함을 찾았던거 같은데 아폐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들이 좋고, 반갑게 인사해주는 현지 사람들도 좋고, 살다 보니 지금 주어진 환경에 재미를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

오기 전에 많은 고민들을 했고 와서도 고민들을 가졌지만 고민들을 내려놓은채 한 달을 보낸 것 같아 내가 왜 라온아띠로서 왔는지 나한테 다시 질문하게 됐다. 도시의 환경과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자발적 불편과 점점 멀리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런 환경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10월부터 가게 된 마을은 이곳과 또 다른 환경의 바기오이다. 앞으로는 조금 더 바기오에 스며들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But 벌레와 친해지기에는 아직.. 멀었다...

//

by Bebe_insuk





//

필리핀 마닐라에 대해서 국내훈련 때 타갈로그어 선생님께서 자기도 마닐라는 위험해서 마닐라 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항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했다. 그래서 마닐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였다. 하지만 팝스 씨와 필리핀대학이나 리잘 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마닐라 YMCA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조금씩 적응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것도 길을 걸으면서 “안녕하세요”, “오빠”, “사랑해요” 등의 친숙한 말을 몇 번씩이나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 보는 사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새벽 5시, 바기오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추위를 느꼈다. 버스 창문에 그려져 있는 습기와 맺혀 있는 이슬들이 마닐라에서 온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바기오에서 9월 달은 pre-school 보조교사를 하였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반겨줘서 오히려 당황했다. 하지만 수십 명이 되는 아이들과 몇 시간씩 함께 있으면서 느낀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다. 이 언어적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감각을 곤두세워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껴 몸짓, 손짓 등 비언어적 행동으로 언어의 부족함을 매꾸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웃으며 즐기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해외 경험이 많지 않은 나에게 있어 필리핀 5개월의 생활은 새로움의 연속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처음엔, 바기오YMCA 입구를 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가드를 엄격하고 무섭다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농담을 주고받고 우리들의 방에 들어와서 함께 놀 수 있게 되어버렸고, 주먹크기의 바퀴벌레와 손바닥 보다 큰 거미와 공존하는 숙소의 침실과 화장실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던 교실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추억으로 하나씩 바뀌어갔다.

이처럼 새로움은 익숙함으로 바뀌어갔고, 그 속에서 조금씩 적응하는 내 모습을 보면 어색한 경우도 있었다. 내게 앞으로 얼마나 어색한 경우가 생길지 기대된다.

by Jimmy_Hanjin

//





//

바기오는 미국인들의 휴양지로 시작된 도시로서, 현재는 한국인이 참 많은 도시이다. 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였으나, 그 영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 듯 했다. 현재 바기오는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도시가 되었다. 한국문화의 영향으로 한식을 판매하는 가게들은 항상 현지인들로 붐비며, 같이 방을 쓰는 아주머니들은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드시고는 한다. 나는 아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하는지, 이 영향에 대해서 더 고민해볼 예정이다.

바기오는 굉장히 넓고, 나의 활동은 YMCA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다. 더 넓은 곳을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꾸준히 든다. 그 작은 곳에서 나는 나를 깨달아가고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두려운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가끔은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에 한심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나의 과정을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맙고, 더 넓은 바기오에서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 실망할지 기대가 된다.

//

by Lily_Seogyong





//

필리핀에도 온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갔다. 무엇을 하든 새롭고 신기할 것만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적응되어가는 것 같다.

처음 필리핀에 온 후, 팝스씨와 함께 마닐라 시티투어를 하였다. 들뜬 마음으로 대학교와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기분으로 다닌 것 같다. 하지만 리살 박물관에서는 필리핀의 독립 운동가였던 호세 리살이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조용해지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듯 했다. 시티투어를 하면서 익히 들었었던 줄리비와 같은 필리핀 음식점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을 먹어 보고, 건물 앞에 총을 들고 있는 경비 분들과 같이 처음 보는 광경에 신기해하며 돌아다녔다. 한편 길을 걷다 우리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는 현지인들을 보며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럽기도 했다. 지낼수록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을 느낀다. 한동안은 우리가 뭐라도 된 마냥 연예인병에 걸리기도 하였다.

바기오에 와서는 마닐라와 비교되는 추운 날씨에 놀랐다. 우리는 YMCA 건물 안에 도미토리룸에서 지내는데, 숙소와 오피스가 함께 붙어 있다 보니 직원 분들이랑 가족과 같이 지내고 있다.(아버지, 어머니라 부르고 있다) 가끔씩 잔소리도 하시지만 우리를 그만큼 챙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달 동안 우리는 YMCA 안 Pre-school에서 4~5세 정도의 아이들의 보조 선생님 역할을 했다. 실상은 아이들과 같이 놀기만 했는데, 수업에 방해가 되진 않았을까 염려된다. 항상 마주치면 반갑게 죠죠행이라고 인사를 해주는 아이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Pre-school에는 선생님이 여섯 명이 있는데,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들과 일대일로 우리의 영어와 타갈로그 공부를 도와주신다. 이것도 공부라기 보단 대화시간에 가까웠는데, 선생님들과 여러 방면에 이야길 나눌 수 있어 그들과 친해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리핀에 와서 좋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첫 한 달이었던 것 같다.

필리핀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크고 작은 호의들이 너무나도 고맙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끼던 것들이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의 배려란 것을 깨닫고 나니 우리가 행여 그들에게 민폐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상 염려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광산마을에 가서 그 곳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만나게 된다. 그 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될지 기대가 된다.

by Jojo_Jimyeong

//

